

2018년 2/4분기

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● 위원회 개요

- 일 시 : 2018. 4. 20.(금) 14:00
- 장 소 : 별관 4층 소회의실
- 안 건 :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대상 및 융자액 결정
- 참 석 : 8명(기획재정국장, 일자리경제과장, 고문식 의원, 오영진 위원, 신용호 위원, 임수연 위원, 김영천 위원, 김주연 위원)

● 회의록

- > 간 사 : 심의위원 소개(생략)
- > 위원장 : 인사말씀, 개회(생략)

< 의사봉 3회 연타 >

- > 간 사 : 2/4분기 심의회 상정안 설명
 - 기금운용 현황 및 융자신청 현황, 선정기준 현황
 - 상정안건 설명
 -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및 융자액 선정안
 - 심의 대상 : 22개 업체 3,796백만원
 - 융자절차간소화 대상 : 28개 업체 731백만원
- > 간 사 : 선정기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립니다. 각 분기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접수시 매출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/4로 조정해도 대출 최대가능액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대출기회가 감소하는 실정이며, 이에 1/4분기시 3억 신청건에 대해서만 2억으로 조정, 대출하였습니다. 이에 2/4분기에서는 신청업체의 대출상한선인 전년도 매출액의 1/4범위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일정 백분율을 적용하여 계획 예산액의 120~130% 범위내에서 금액조정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전체 22개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 및 전년도 매출액의 1/4로 조정된 금액과 각 퍼센트별로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

한 용자대상자는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.

> 000 :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바랍니다.

> 000 :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전 심의시 1안, 2안 이렇게 마련한 뒤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/4의 100%, 95%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업체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85%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.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액의 60%를 지원하게 되면 신청업체 전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OO업체의 경우 3억까지 해준다 해놓고 왜 1억 8천만원만 해주느냐고 하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고 하는 업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3억 신청업체의 경우 적어도 2억 5천까지는 줘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 이 의견 참고를 부탁드립니다.

> 000 : 여기 심사대상중에 기존에 받은 사람(업체)가 또 있습니까?

> 000 : 지원받은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.

> 000 :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.

> 간사 : 선정되었는데 다시 지원하지는 못하고 1차에서 본인순위가 밀려서 탈락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> 000 : 아니,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을 70% 이상 하게 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.

> 000 :네.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기 대출받았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.

> 000 : 현재 대출중(진행중)인 업체(사람)은 없습니다.

> 000 : 여기 표를 보시면 기 대출이력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.

> 000 : 현재는 없다는 이야기인거죠?

> 000 : 네. 맞습니다.

> 000 : 기 대출이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?

- > 000 : 저희가 이 사업을 1991년도부터 운영중이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대출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.
- > 000 : 감점 15점이면 대출 몇 회를 한 겁니까?
- > 000 : 2회를 받게 되면 -15점입니다.
- > 000 : 한번 받으면 -10점입니까?
- > 000 : 예, 1번은 -10점이며 뒤에 심의자료 보시면 있습니다.
- > 000 : 한번 대출받으면 몇 년간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?
- > 000 : 지원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받은 이력이 감점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습니다.
- > 000 : 이 제도는 융자기금지원제도를 이용해 본 업체만 계속 이용하려 합니다. 모르는 업체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3억씩 지원해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. 5천 이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.. 소액 대출의 경우 연이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금액이 1억이나 2억의 경우 좀 제한을 두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3000만원 이하 신청의 경우 많아야 7억이 조금 넘습니다. 나머지가 25억 정도 되는데. 생색은 7억으로 내고 큰 금액의 대출비중이 3/4가 차지합니다.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
- > 000 : 지난번에도 늘 언급된 문제였습니다.
- > 000 : 그래서 이번에는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지원하려고 합니다.
- > 000 : 3000만원 이하의 업체는 어떻게 지원되나요?
- > 000 : 은행에서 바로 접수 후 대출하게 됩니다.
- > 000 : 25억중 12억 5천은 큰 금액, 12억 5천은 3000만원 미만으로 배정해야 합니다. 또한 큰 금액이 경우 한번 대출받으면 5년 내에는 대출을 못받게 한다든지 조례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출받은 업체(사람)이 계속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.

- > 000 : 저희가 이번에도 25억중에 12억 5천은 3천만원 이상 대출신청건, 12억5천은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건에 배정해 났습니다만 2/4분기에는 3천만원 이하 신청이 총합 7억3천1백만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.
- > 000 : 좋은 안이 있으면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- > 000 : 분기별로 신청이 몇 건이나 됩니까?
- > 000 : 50건입니다.
- > 000 : 50건의 경우..분기별 집행 예정액이 25억인데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경우..집행을 해야 하는 데 못하게 되니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
- > 000 : 예전에는 우리가 순번만 적어서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에서 걸러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없는 업체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형식으로 3000만원까지는 그냥 우선 해줬습니다만.. 시장에 가보시면 없는 업체는 일수를 짊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동대문 상인들 같은 경우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집행부에서는 알하기 편하기 위해 덩어리 큰 업체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. 제도를 변경해서 반 정도는 무조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배정해야 합니다.
- > 000 : 이 제도는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...
- > 000 : 네.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.
- > 000 : 아닙니다. 홍보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> 000 : 홍보는 잘 되고 있음에도 나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잘 안하게 된다. 신청이 안들어 오는 것을 신청해라 강요할 수 는 없는 것 아닌가요..
- > 000 : 그렇기도 하지만 3000만원에서 1억을 신청한 업체는 은행심사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다. 담보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.
- > 000 : 3000만원 신청시에도 담보가 필요한가요?
- > 000 : 네. 필요합니다.

- > 000 : 시장상인들은 은행을 잘 모릅니다. 자영업자는 쉽지 않습니다. 봉제업체의 경우 다 들 힘들어 하는데 대출이 필요합니다. 봉제업체는 지금 일수를 짊어 자금을 확보합니다. 돈을 어떻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.
- > 000 : 그 수많은 업체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?
- > 000 : 흥내라도 내야 합니다.
- > 000 : 은행에서도 무작정 대출할 수는 없고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 각 기관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.
- > 000 : 구청에서 자금을 떼일 일은 없습니다. 이 제도가 처음에는 영세상인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다 보니 금액이 커지고 한 겁니다. 구청에서도 일을 편하게 하려니 큰 금액 건 몇 건 처리하면 되는데..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고생하지만..영세상인은 매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심의회를 들어와 보면 신청 업체중 같은 업체가 여러 번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이 제도를 알고 오기 때문입니다.
- > 000 : 융자금 지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?
- > 000 : 연초에 전단지를 각 부서 및 동,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분기별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도 홍보합니다.
- > 000 : 신청금액이 3억인데 이것을 낮추는 것은 어떤가요?
- > 000 : 동대문, 남대문의 경우 중국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어 다 들 힘들어합니다. 작년에 3000만원 신청건을 많이 반자고 해서 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. 그래도 고액신청자가 많으니까..더 줄여서 제도적으로 50%는 묶어서 3000만원 이하 간소화에 배정하도록 합니다.
- > 000 : 기 대출자가 신청시 신청액의 50%만 지원한다든지 하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
- > 000 : 예를 들어 3억 신청의 경우 최소 5년간 지원유예를 한다든지 또는 50%만 한다든지 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

- > 000 :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5년 안에 다 갚고 또는 70%를 다 상환하고 신청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.. 5년 내에 재신청시 감점을 준다든지..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.
- > 000 : 예를 들어 2억 신청건은 2억 신청건으로..3억 신청건은 3억 신청건으로 분류해서 심사표를 작성할 수 는 있는건가요?
- > 000 : 금액별로?
- > 000 : 할 수는 있습니다.
- > 000 : 그렇다면 12억 5천은 어떻게 (계획액의 50%는 소액 간소화 대상) 자를 것인가요?
- > 000 : 심의회에서 자르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3천에서 1억까지 신청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점수를 도출하고 1억에서 2억까지 별도로 점수를 도출하고.. 하면 좀 더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- > 000 : 예를 들어 같은 신청금액중에서 점수를 내서 순서화한다? 이말씀인가요?
- > 000 : 그렇습니다.
- > 000 : 신청업체 매출액보다 큰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신청금액만으로 점수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. 3억 신청을 했는데 5천만원 매출실적으로 확인되면.. 3억 신청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?(실제로는 5천 신청 범주에 들어가야 함에도)
- > 000 : 그 사실은 신청업체에 안내를 해 주어야지요.
- > 000 : 그럼 12억 5천은 어떻게 자를 건가요?
- > 000 : 그것은 융자조정액을 보고 잘라야죠.
- > 000 : 신청금액별로 범주를 정하여 심사표를 만들어 다음 분기에 반영하겠습니다.
- > 000 : 구청에서는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수혜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- > 000 : 그럼 현수막 홍보는 어떻게습니까?
- > 000 : 서울시 전체에서 현수막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> 000 : 계획액 대비 50%는 3000만원 이하 신청건으로 배당하는 것은 어떻게 한건가요?
- > 000 : 방침으로 정했습니다.
- > 000 : 그럼 몇 프로로 정할 것인지 의견제시 바랍니다.
- > 000 : 신청지원금의 실효적 사용을 위해 전년도매출액 대비 1/4의 85%를 제안합니다.
- > 000 : 이의없으십니까?
- > 000 :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85%로 확정하겠습니다.

<의사봉 3회 연타 >

- > 000 : 이것으로 심의위를 마치겠습니다.

<의사봉 3회 연타>